

Schonfield, Hugh J. *Secrets of the Dead Sea Scrolls*. New York: Barnes, 1957.

Schubert, Kurt. *The Dead Sea Community—Its Origin and Teaching*. trans. by John W. Doberstein, Westport: Greenwood, 1973.

Trever, J. C. *The Dead Sea Scrolls: A Personal Account*. Grand Rapids: Eerdmans, 1977.

Vermes, Geza. *Scripture and Tradition in Judaism*. Leiden: Brill, 1973.

_____. *The Dead Sea Scrolls: Qumran in Perspective*. Cleveland: Collins & World, 1978.

_____. *The Dead Sea Scrolls in English*. Middlesex, England: Penguin, 1968.

Wilson, Edmund. *The Dead Sea Scrolls 1947—1969*.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Yadin, Yigael. *The Message of the Scrolls*. New York: Simon & Schuster, 1957.

공동번역성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77.

성경전서. 서울: 대한성서공회, 1964.

Gorden Clark에 있어서 眞理의 一義性問題

金 聖 麟*

◇ 目 次 ◇

序 論

I. 論理의 本質에서 본 眞理의 一義性

1. 論理의 本質

II. 認識의 起源에서 본 眞理의 一義性

1. 經驗論과 眞理

2. 先驗論과 眞理

3. 啓示와 眞理

III. 一義的 眞理의 特性에 대한 論證

1. 神知識의 先驗性

2. 眞理의 絶對性

3. 眞理의 精神性

4. 眞理의 卓越性

5. 眞理와 하나님

結 論

序 論

認識論¹⁾이 哲學에서 重要한 意味를 갖게 된 것은 록크(John Locke, 1632~1704)가 人間悟性論(*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1689~90)을, 칸트(Immanuel Kant, 1724~1804)가 「純粹理性批判」(*Kritik der reinen Vernunft*, 1785)을 각각 出版하여 認識의 心理學的 起源(Locke)과 理性一般의 批判에 의한 認識의 先驗的(apriori) 근거와 권리와 그 한계성을 規定(Kant) 지우려 한데서 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哲學史의 으로 살펴볼때 眞理에 대한 反省은 벌써 希臘의 自然哲學에서 부터 시작이 되었다.

* 副教授

1) Epistemology는 希臘어 'ἐπιστήμη(認識)와 λόγος(理論)의 合成語로서 認識의 起源, 構造, 本質, 妥當性, 內容, 可能性등에 대하여 論理的으로 고찰하는 哲學의 한 部分이다.

Miletos學派에서는 生成消滅하는 自然界의 背後에서 不變하는 源物質²⁾을 求하였으며 Elea學派에서는 理性的 思惟를 통하여 「有」의 概念³⁾을 確立함으로 感覺知를 한갓 境界⁴⁾이라 하여 이를 경멸하였다. Sophist들은 「人間을 萬物의 尺度」⁵⁾로 삼은 결과 眞理는 사람의 數만큼 多義的인 것이 되었으며 결국은 懷疑論⁶⁾에 빠지고 말았다.

한편 Sophist들과는 달리 Socrates, Platon, Aristoteles와 같은 哲學者들은 絶對的 眞理의 存在와 理性에 의한 眞理認識의 可能함을 主張했다.

中世期の Schola 哲學에 있어서는 知識은 信仰보다 낮은 位置에 놓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類推的方法에 의하여 神의 存在를 說明할 수 있다고 믿었다.

近世에 와서 認識論은 經驗論과 合理論으로 兩分되었다. 經驗論者들은 內在觀念(innat idea)을 否定하고 認識의 根據를 感性的인 經驗에서 求하였고, 合理論者들은 内存觀念을 認定하고 認識을 理性的 思惟에서 求하였다. 그 결과 前者는 헬라의 自然哲學者들처럼 眞理의 相對性을 主張하였고 後者는 眞理의 絶對性과 그의 認識의 可能性을 主張했다. 그러나 결국 經驗論은 懷疑論에 빠져 들어갔고 合理論은 獨斷論의 誤謬를 犯하게 되었다.

칸트는 合理論과 經驗論을 다같이 批判함으로 認識의 先驗的 起源과 그 限界性을 明示하려 하였다. 그는 그의 著書 *Kritik der reinen Vernunft*에서 「內容없는 思惟는 空虛하고 概念없는 知覺은 盲目이다.」⁷⁾고 主張했다.

이와같이 合理論에 입각할 때 絶對的인 眞理의 認識이 可能하게 되며, 따라서 眞理는 항상 一義的 性格을 띄게 된다. 反對로 經驗論에 立脚할 때 眞理는 相對的인 것이 되며, 따라서 多義的 性格을 띄게 된다. 칸트는 理性的 認識限界를 現象界에 局限시키고 物自體(Ding-an-sich)의 認識은 實踐理性的 영역으로 이월시킴으로 自然은 主觀의 構成으로 理念은 實踐理性的 要請으로 區分하였다.

이 論文에서는 Gordon Clark에 있어서 眞理의 一義性(Univocal)에 대하여 Nash 教授의

2) 헬라어로 아루키(arche)라는 말은 始源, 根本, 物質을 뜻하며 라틴어에서는 根本原理라는 뜻으로 principium라고 번역이 된다.
 3) Elea 학파에 속하는 Parmendes에 의하면 有는 無始, 無終, 永遠不變, 不動, 不可分의 연속적인 唯一의 絶對的 存在라 했다. 그는 思惟와 有在를 同一視하였고, 有만 있고 無는 없다 하여 無를 前提로 하여 있을 수 있는 運動과 物質의 存在를 否定했다.
 4) parnrenides에 의하면 空虛空間은 없으며 따라서 空間에 存在하는 感覺的 對象으로서의 世界는 存在하지 않는다. 境界이란 있는 것을 없다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認識의 誤謬를 의미한다.
 5) Sophist의 한사람인 Protagoras는 人間이 萬物의 척도(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라는 觀點에서 眞理認識의 相對性을 主張했다. (that what is true for you is true only for you and what is true for me is true only for me) Sahakian. *History of philosophy* p. 26)
 6) 懷疑論(英) Skeptium Gorgias는 그의 저서 *On Nature or the non existent*에서 ① Nothing exists ② if anything did exist we could never know it; and ③ if by chance we should come to know it, it would remain a secret because we could not communicate it to other (*Ibid*, p. 27)이라 하였다.
 7) Thoughts without content are empty, perception without conception are blind……Understanding can perceive nothing, the senses can think nothing, Knowledge arises only from these United Action) *The philosophy of gordon clark* p. 171

Clark의 認識論(Gordon Clark's Theory of Knowledge) 研究를 中心하여 考察하겠다.⁸⁾

第一章에서는 Clark에 있어서 認識의 前提가 되는 理性으로서의 論理의 本質에 대하여, 第二章에서는 認識의 起源에 대하여, 第三章에서는 眞理의 「一義性」에 대한 Clark의 論證에 대하여 各各 考察한 다음 Thomas Aquinas와 Cornelius Vantil의 眞理의 類推性(analogical) 概念과 Clark의 眞理의 一義性에 대하여 비교하여 考察함으로 基督教認識論에 있어서 認識의 限界와 眞理의 眞理됨에 대한 根據를 提示하고자 한다.

I. 論理의 本質에서 본 眞理의 一義性

Nash教授는 Clark의 認識論이 傳統的으로 合理主義(Rationalism)의 系列에 서기는 하나, 그러나 그는 칸트主義者도 헤겔主義者도 아니다. 구태어 系列을 따진다면 Augustine에서 그의 思想의 起源을 찾아야 할 것이다⁹⁾고 記述한 것으로 보아 Clark는 基督教의 合理論者 또는 基督教의 先驗論者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Clark가 理性論者라고 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理性(Reason)이란 무엇을 意味하며 그 機能은 어떤 것인가의 問題가 明白하게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哲學者에 따라서 理性的 概念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¹¹⁾

1. 論理의 本質

Nash教授는 Clark에 있어서 理性(Reason)이란 단순히 「論理」(Logic)를 意味한다했다¹²⁾ 論理란 思惟의 法則을 의미한다. 어떻게 하면 誤謬를 범하지 않고 바르게 思惟하고 判斷함으로 眞理에 도달할 수 있는가?라는 思惟의 範疇를 研究하는 學問이 論理學이다. Clark의 認識論에서는 論理가 단순히 眞理에 도달하기 위한 思惟의 法則이상의 意味를 가진다. 그것은 그가 論理를 理性과 같은 意味로 使用하고 있는 事實만 보아도 明白하다. 合理論에 있어 理性이란 언제나 단순한 思惟의 法則이상의 뜻으로 사용되어져 왔고, 또 사용되어지고 있다.

칸트는 理性과 悟性を 구별하여 前者를 理念의 能力으로, 後者를 悟性の 構成能力으로 보았으며 헤겔은 理性을 辨證法的 發展을 통하여 現實에서 自己를 發展시켜 나가는 精神的 形而上學的 實體로 보았다.

8) Ronald H. Nash는 Western Kentucky University의 哲學科主任教授로서 "*Dooyewerd and Amsterdam philosophy*" (1962)의 저자이기도 하다.
 9) Ronald H. Nash *The philosophy of Gordon Clark* (Philadelphia, The Preslyterian and Reformend Publishing Co., 1968) p. 126
 10) 이 論文이 進展함에 따라 Clark가 기독교적 合理論者가 되는 論據가 明白하게 될 것으로 생각됨.
 11) 理性(羅) Ration (獨) Vernunft, 일반적으로 동물과 區別되는 思惟能力和 道德法則에 순종하는 理念의 能力을 의미한다. Platon은 idea를 知的 直觀能力으로, Aquinas는 啓示와 對立되는 論證的 認識能力으로 Hume은 感性經驗과 對立되는 것으로, Kant는 理念의 統制能力으로, Hegel은 絶對精神으로 各各 보았다.
 12) *Ibid*. p. 126

Clark는 칸트主義者가 아니며, 또한 헤겔主義者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비록 論理와 理性을 같은 意味로 理解한다고 해서 저들 觀念論者들이 理性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과 같은 概念으로 論理의 概念을 規定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認識에 있어서 Platon, Augustine, Descartes, Leibenz를 통하여 이어지는 合理論者들의 系列에 서는 한¹³⁾ 그의 論理의 概念은 단순한 思惟의 法則 이상의 뜻을 內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Clark는 論理가운데 矛盾律(the law of Contradiction)을 思惟의 가장 正確한 法則으로 認定한다. 矛盾律이야말로 그 眞理性의 證明이 必要하지 않는 自명한 思惟의 前提가 된다. 思惟란 언제나 一定한 前提에서 出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眞理性이 證明되지 않고도 自명한 原理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法則이 存在해야 한다. 그것이 矛盾律이다. 그에 의하면 矛盾律이야말로 證明이 必要치 않는 思考의 前提가 되는 窮極的인 原理(Ultimate principle) 된다¹⁴⁾는 것이다.

Clark의 認識論에서 論理라고 말할 때 大概 矛盾律을 意味한다. 그는 矛盾律의 自明性和 眞理性과 實在性을 前提로 하여 自身の 立場의 正當性과 相對方의 立場의 虛爲性을 論證한다.

(1) 論理의 存在性

Clark는 合理論者가 理性을 단순한 悟性의 判斷範疇로 보지 않고 本質的 實在性을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矛盾律을 단순한 論理의 形式的인 法則으로 보지 않고 實在에 있어서 存在論的 根據를 갖고 있는 原理로 간주한다.¹⁵⁾ (The laws of logic must be, not only the laws of thought, but the laws of reality as well)

理性의 法은 宇宙의 理性的인 질서의 한 側面을 反映하고 있으며, 人間의 知識은 理性的인 질서와 世界의 存在를 前提로 해서만 可能하기 때문에 理性이 없다면 宇宙는 非合理的이고도 不合理的인 것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될 때 宇宙는 理解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¹⁶⁾

(If there were no reason, the universe would be unreasonable, irrational and in that case it would not be understood)

Clark에 있어서 論理의 法則은 存在의 파생물이기 때문에 兩者는 相互間에 構造聯關性을 가진다. 그리하여 矛盾律과 矛盾없는 存在는 相互 侵透되어 있는 것이다.

(2) 論理와 言語의 關係

Clark에 의하면 矛盾律을 前提로 하지 않고서는 有意味한 말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反對되는 意味의 言語가 同時에 같은 뜻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이다. 矛盾律의 拒否는 知性的인 言語를 媒介로 하여 表現되어져야 하며, 知性的인 言語는 法則을 前提로 하기 때문에 矛盾律

13) *Ibid.*, p. 126
 14) *Ibid.*, p. 127
 15) *Ibid.*, p. 97
 16) *Ibid.*, p. 7

의 拒否는 不可能하게 된다.¹⁷⁾

言語가 知性的이고도 有意味한 것이 되려면 一義的 意味(Univocal meaning)을 가져야 한다. 만일에 言語가 無限定한 意味를 갖는다면 모든 合理的인 思惟는 不可能하게 된다. 그 理由는 뜻을 傳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意味함과 同時에 어떤것을 意味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Clark에 있어서 言語와 矛盾律은 不可分離의 關係에 놓여 있으며 存在와 思惟에 있어서 必要不可缺의 法則이다.¹⁸⁾

(The laws of Contradiction is not stipulative but a necessary and in dispensable law of being and of thought)

(3) 論理와 懷疑論

Clark는 矛盾律을 前提로 하여 懷疑論을 論駁한다. 懷疑論者들은 絶對的 眞理의 不可能함을 主張한다. 가령 이 主張이 眞理라고 하자. 그렇다면 眞理는 存在하는 것이 된다. 이 主張이 眞理가 아니라고 하자. 그래도 역시 眞理는 存在한다.

懷疑論者들은 다음과 같은 理由로 해서 自己矛盾에 빠지게 된다고 Clark는 지적한다.

첫째 사람은 누구나 先驗的으로 論理의 眞理를 認識하고 있다.

둘째 懷疑論者들이 자신들의 論理의 正當性을 主張하기 위해서는 論理의 法則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

셋째 懷疑論者들은 사람은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主張함으로 矛盾律을 범하고 있다.¹⁹⁾

Clark는 矛盾律을 사용하여 眞理의 相對主義를 論駁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相對主義를 反駁한다.²⁰⁾

그는 또한 宗教的 新正統主義(religious neo-orthodoxy)도 反駁한다. 그 理由는 新正統主義에서는 眞理를 神-人의 만남(the Divine-Human encounter)으로 이관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Emil Brunner에 의하면 宗教的 命題들은 그 自體로서는 眞理도 거짓도 아니고 眞理를 指

17) *The philosophy of Gordon H. Clark* p. 128

18) *Ibid.* p. 130

19) *Ibid.* pp. 131~132

20) Oswald Spengler의 文化相對主義에 의하면 眞理란 思惟者에게 강요된 思想形態(thought-pattern)의 단순한 反復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相對的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Clark는 Spengler의 이러한 思想 역시 그가 속한 文明的 現境의 產物이기 때문에 相對性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實用主義에 의하면 眞理란 「生」을 위하여 實用的인 效用性이 認識될 때 眞理가 되는 것이며 「生의 道具」로서의 意義를 가지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眞理를 위한 眞理란 存在하지 않는 것이다. 모든 眞理는 항상 目的을 향하여 前進하는 것이다. Clark는 이러한 實用主義의 眞理觀에 反對한다. 獨단주의에 대한 反對는 항상 獨단적이며 相對主義는 언제나 絶對적으로 眞理의 相對性을 主張하기 때문에 相對主義는 自己矛盾을 범하게 된다고 Clark는 주장한다. (Objections to dogmatism are always dogmatic, and relativisms are always asserted absolutely, Thales to Dewey, *op. cit.*, p. 30)

示하는 것이다. Clark는 만일 Brunner가 “참된 言語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指示한다”(that true sentences point the way to God)고 말했다면 그는 懷疑論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Brunner에 있어서 指示者는 眞理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실상 眞理가 아닌 聖經句節이나 말씀을 통하여 自己自身을 啓示하신다. Clark는 이러한 Brunner의 입장에 反駁한다. 거짓을 전파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은 眞理를 不道德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眞理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懷疑主義의 根源이 될 것이다.

(4) 論理와 하나님의 關係

하나님과 論理的 眞理와는 어떤 關係에 있는가? Clark의 批判者들은 그가 論理를 하나님보다 上位에 位置시킨다고 비난을 한다. 그러나 그의 立場은 Platon이나 Aristoteles의 形而上學的 理性主義와는 다른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모든 眞理와 論理보다도 하나님의 主權을 더 높인다. 論理의 法則이 비록 하나님께서 判定하신 法則이기는(The law of Contradiction is a God-decreed and God-given law)하지만 이 法則들은 Clark에 있어서 하나님과 同等한 궁극적인 原理는 아닌 것이다. 하나님이 矛盾律을 범할 수 없다고 Clark가 主張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能力의 制限性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네모난 원」을 창조할 수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無에서 有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지, 無에서 無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意味한다. 왜냐하면 「네모난 원」이란 實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理性은 Clark에 의하면 하나님의 屬性(reason is an attribute of God)으로서, 創造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理性의 法이 하나님의 意志로부터 獨立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하나님의 能力을 制限하는 것이 아니다. 理性의 法은 하나님의 意志의 活動의 序述로 간주되어 진다. Clark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法의 賦與者(the law-giver)인 것이다. 비록 그의 사상體系에서 世界 理念(a world of ideas)이 發見될 여지가 있다손치더라도 그것들은 하나님의 理念들(Gods ideas)이며, 생각이며, 宇宙에 대한 그의 計劃인 것이다.

(5) 論理와 人間의 關係

Clark는 칼빈主義者이므로 原罪說을 믿는다. 그렇다면 罪가 人間의 이성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는가? Vantil은 罪가 人間의 有限성과 結合하여 理性의 전기능을 全적으로 不完全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lark는 이 點에 대하여 Vantil과 意見을 달리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비록 罪가 人間의 全人格에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모든 기능에 同一하게 영향을 미치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 重生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意志의인 行爲가 道德的일 수 없지만 그러나 모든 知性的인 論議가 無價値할 수는 없는 것이다. 人間이 하나님의 形像(the image of God)됨을 完全히 中止하였다는 主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論理와 理性의 構成要素에 各별한 強調點을 두어야 한다. 비록 罪가 人間으로 하여금 正確하게 思惟할 수 있는 能力을 防害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論理의 法則은 罪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C-

Clark는 主張한다. 그리하여 人間이 主觀적으로 論理의 法을 범하거나 攄수하는 것과는 無關係하게 論理의 法自體는 眞理가 된다.

人間은 原罪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있는 存在라야 하며 人間이 알 수 있는 것은 論理의 法則인 것이다.²¹⁾

(6) 論理와 信仰

Clark에 의하면 理性과 信仰은 서로 調知의 關係를 이루고 있다. 理神論, 啓蒙主義, 汎神論, 理性의 科學主義등에서는 理性은 信仰없이 眞理를 認識할 수 없으며, 理性과 信仰은 서로 對立關係에 놓여 있다고 主張한다. Clark는 人間이 하나님의 啓示를 받아들이기 前에는 常識에 到達할 수 없기 때문에 信仰없는 理性은 어떤 種類의 知識도 供給해 주지 못한다고 主張한다.²²⁾ 그는 또한 宗教의 非合理主義에도 反對한다. 저들은 信仰은 眞理에 依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信仰에 있어서 眞理를 要求할 必要가 없다고 主張한다. 하나님과 人間의 宗教的인 만남(the religious encounter)에는 思辨의 內容이 缺乏되어 있기 때문에 理性없는 信仰(Faith without reason)은 宗教의 懷疑主義로 나가게 한다고 Clark는 지적한다.²³⁾ (“Faith without reason, than leuds to religious skeptieism”)혹자는 Clark의 이러한 立場을 Thomas의 「Faith or reason」의 關係로 誤解한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알기 위하여서는 믿어야 한다 (man must believe in order to know)고 主張함으로 信仰없는 知識을 否定한다.

同時에 모든 知識은 信仰²⁴⁾ (all knowledge is Faith)이라고 함으로 理性과 信仰은 相互 支持하는 關係(reason support faith)에 놓이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眞理의 하나님이며 智慧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로고스(Logos)며 論理(the logic)며 말씀(the word)인 것이다. 人間은 理性的인 存在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人間에 대한 하나님의 眞理를 理解할 수 있다. 하나님의 啓示에 근거한 기독교는 理性的宗教이기 때문에 知性에 의하여 理解可能한 內容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啓示는 人間에 의하여 理解될 수 있다고 Clark는 主張한다.²⁵⁾

(7) 論理와 眞理

論理와 眞理는 어떤 關係에 있는가?

Clark는 論理와 眞理의 一貫性을 主張한다. 즉 眞理는 論理의 法則을 前提하며 論理의 法則은 眞理를 定義한다. 비록 헤겔主義者는 아니지만 “現實的인 것은 理性的이며 眞理는 全體”(the real is the rational and the truth is the whole)라는 헤겔의 見解에 同意한다. 現實

21) Ibid. pp. 135~136

22) 理性과 信仰을 對立關係에서 보려하는 人本主義的인 立場에 대한 批判은 그의 著書인 “Thales to Dewey”의 여러 部分에서 發見이 된다.

23) Ibid. p. 137

24) A Christian View of men thing p. 324

25) Gordon Clark, Reveald Religion (Christianity today, December, 1865) p. 24

이런 聯關性이 없는 要素들의 우연한 集合일 수 없다. 참 命題는 論理的으로 거짓 命題와 兩立될 수 없다. 모든 참 命題는 다른 모든 참 命題와 一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가 眞理의 一貫性을 主張하는 것은 모든 命題들은 相互聯關關係에서 파악하고 있는 精神이 存在할 때 비로소 絶對的인 眞理의 認識이 可能하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命題가 眞理인 까닭은 그것을 하나님에 알고 있으며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것과 聯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全智性은 사실에 있어서 모든 命題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事實에서 成立이 된다²⁶⁾고 Clark는 主張한다.

우리는 Clark의 이러한 理論에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命題와 人間이 論理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는 命題사이에 어떠한 本質的인 差異點도 發見할 여지가 없다는 事實에 注目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眞理의 一義性의 論理的인 根據가 있는 것이다. 眞理는 全體며 人間이 認識하고 있는 眞理는 全體的 眞理의 一部分이기 때문에 眞理는 一義性을 떨 수 밖에 없는 것이다.

II. 認識의 起源에서 본 眞理의 一義性

前章에서 우리는 Clark의 認識論에 있어서 論理의 本質과 眞理의 必然的인 一義性 性格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여기서는 認識의 起源에서 본 眞理의 一義性에 대하여 살펴 보겠다.

1. 經驗論(Empiricism)과 眞理

認識의 起源은 크게 經驗論과 合理論으로 兩分된다. Clark는 經驗論을 反對하고 合理論을 修正하여 基督敎的 合理論의 立場에서 認識의 起源을 찾는다.

Clark에 있어서 經驗論이란 內在觀念의 存在를 否認하고 모든 知識은 궁극적으로 感覺的인 經驗에 起源한다고 主張하는 認識論을 意味한다²⁷⁾ 知識이 感覺的인 經驗에 起源한다면 人間이 所有하고 있는 數學的, 幾可學的 眞理나 因果律이나, 時間과 空間概念은 正當化될 수 없다. 이러한 知識들은 感覺的인 經驗에 起源한다기 보다는 이러한 知識의 觀念을 前提로 해서만 可能하게 되는 것이다. 神觀念이나 神存在의 知識들은 經驗論으로서로는 도저히 說明할 수 없는 것이다. 合理論의 立場에서 있는 Clark는 모든 人間의 知識은 一定한 先驗的 知識에 依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2. 先驗論(Apriorism)과 眞理

Kant와 마찬가지로 Clark도 人間의 知識의 可能性은 內在觀念에 依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Kant를 넘어서 人間이 認識할 수 있는 能力을 하나님으로부터 賦與받았으며 하나님은 그것을 自然法則과 調知를 이루게 한다는 것이다.

Kant의 先驗主義와 Clark의 先驗論의 差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6) *The Philosophy of Gordon Clark* p. 139

27) *Ibid.* p. 140

(1) Kant에 의하면 모든 知識은 經驗과 더불어 始作이 된다.²⁸⁾

(Dass alle unsere Erkenntnis mit der Erfahrung anfangt, daran ist gar kein Zweifel) 즉 感覺的인 觸發에 의해서만 悟性의 思惟活動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Clark는 Kant의 이러한 立場에 反對하여 순수하고도 믿을 수 있는 知的 直觀, 自我存在에 대한 自己知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啓示를 통해서만 知識이 可能하다고 主張한다.²⁹⁾

(2) Kant는 人間의 理性은 物自體는 認識할 수 없고 다만 現象界를 認識할 수 있다고 主張하는데 反對하여 올바른 認識論은 物自體도 認識해야 하며, 自然法則은 단순한 主觀的인 構成이 아니고 客觀的인 法則의 世界라고 Clark는 主張한다.

(3) Kant는 悟性의 範疇를 12가지로 分類³⁰⁾했으나 Clark는 因果性, 統一性, 空間, 時間, 實體, 眞理, 하나님에 대한 知識은 先驗的인 眞理로서 感覺的인 經驗에 起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先驗的인 思惟範疇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主張한다.

Clark의 認識論은 Kant의 認識論이 直面하게 되는 여러가지 難點을 解結하였는데, 첫째는 懷疑論을 克服한 것이다.

Kant에 의하면 認識이란 感覺的인 所與에 悟性이 질서를 賦與하는 데서 성립된다. 그러나 이것은 原理的으로 不可能한 것이다. 그 理由는 主觀이 構成한 世界와 本質의 世界가 同一한지의 여부를 判斷할 수 없기 때문이다.

Clark는 Kant와는 달리 自然世界는 단순한 主觀的인 構成物이 아니고 客觀的으로 存在하는 合理的인 世界며 人間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客觀的인 世界를 알 수 있는 能力을 賦與받았기 때문에 질서있는 世界構造와 人間의 마음은 調和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理性的인 人間의 精神構造는 合理的인 世界秩序와 類似性을 가지게 됨으로 世界의 本質과 物自體를 認識할 수 있게 된다.

Kant의 認識論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問題點은 왜 모든 人間이 同一한 範疇를 가지고 있는가의 問題다. Clark는 이 問題를 人間이 하나님의 形像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과 연관시켜서 解結한다. 하나님은 理性的인 存在로서 合理的인 世界를 創造하셨을 뿐만 아니라 人間도 理性的인 存在로 創造하였기 때문에 人間은 하나님에 대한 知識을 가질 수가 있으며 自然의 本質을 認識할 수 있는 것이다.³¹⁾

Clark는 하나님과 世界와 人間사이에 論理的인 一貫性을 認定함으로써 懷疑論을 克服한 것이다.

28) Immanuel Kant: *Kritik der reinen Vernunft. Einleitung*

29) *The Philosophy of Gordon Clark* p. 142

30) Kant에 의하면 悟性의 12範疇에는 "Unity, plurality, totality, reality, negation, limitation, substance, causation, reciprocity, possibility, existence, necessity"가 있다.

31) *Christian View* p. 318

3. 啓示와 眞理

Clark는 有神論者이기 때문에 人間의 先驗的인 知識外에 또 하나의 知識의 起源이 있음을 믿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啓示인 것이다. 하나님은 世界를 創造하였을 뿐 아니라 人間에게 말씀하시며 消息을 전하신다. 經驗論과 合理論이 올바른 認識論을 確立하지 못한 것은 知識의 起源으로서 啓示를 認定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Clark는 啓示를 自然神學과 만남으로서 啓示와 말씀에 의한 啓示의 세가지 형태에 대하여 論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自然神學에 대해서만 고찰하겠다.

(1) Thomas Aquinas의 經驗論的 認識批判

Clark는 神知識을 人間에게 提供함에 있어서 自然啓示만으로 充分하다고 主張하는 Thomas Aquinas의 主張에 反對한다. 그는 人間의 마음에 內在하는 內在觀念을 否定하고, 感覺的인 資料를 끈기있게 分析함으로 神知識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Clark는 神의 存在는 感覺的인 經驗만으로는 證明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 理由는 人間이 內在的인 理性的 範疇없이 世界의 아무것도 認識할 수 없는 것처럼 先驗的인 神觀念이 없이는 神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經驗論이 世界의 本質을 認識할 수 없는 것처럼 Aquinas의 經驗論的 認識方法에 의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知識도 所有할 수 없다. Clark는 Aquinas의 神存在證明을 無價値한 것으로 評價한다. 有限한 經驗의 事實에서 출발하여 無限한 神의 存在를 證明한다는 것은 論理的으로 不可能한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여 證明된 神은 기독교의 唯一神이 아니고 多様한 神性を 가진 多神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神에 대한 우리의 知識은 一義的이 아닌 多義的인 것이 되고만다고 그는 主張했다.³²⁾

(2) Aquinas의 類推論에 대한 Clark의 批判

Clark는 自然神學의 土臺를 이루고 있는 Aquinas의 類推論(doctrine of analogy)을 反駁한다. Aquinas에 의하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어떤 말도 一義的인 뜻(Univocal Sense)으로 使用될 수 없다. 하나님은 超越的이고 無限한 反面,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知識은 經驗的인 事實에 土臺하고 있기 때문에 不完全하고 有限한 것이다 라고 그는 主張한다.³³⁾

Clark는 여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反駁한다. 즉 만일 하나님에 대한 一義的인 서술이 不可能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叙述은 多義性을 意味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自然神學의 終末을 意味하게 된다. 왜냐하면 多義的인 眞理는 必然的으로 懷疑主義에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32) *The Philosophy of Gordon Clark* p. 148

33) 예를 들자면 智慧(wisdom)라는 말이 솔로몬과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 同一한 뜻으로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智慧는 無限한 하나님의 本質에 根據하지만 솔로몬의 지혜는 有限한 人間의 本質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에 대한 叙述과 人間에 대한 叙述사이에 一義的인 眞理는 存在하지 않는다. 神의 存在는 必然的이며 人間의 存在는 偶然적이기 때문에 存在 문제에 대해서도 一義的인 眞리는 成立되지 않는다.

Aquinas가 企圖한 바와 같이 經驗的인 事實에서 超經驗的인 神의 存在를 證明하려고 할 경우 多義性의 誤謬를 범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神에 대한 有意味한 叙述은 할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形像의 한 部分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賦與된 先驗的인 知識과 內在觀念을 통해서만 神에 대한 有意味하고도 一義的인 叙述을 할 수 있게 된다고 Clark는 主張한다.³⁴⁾

비록 類推的方法이 消極的인 意味에서 神學的인 知識에 貢獻한다 해도 그것으로는 不足한 것이다. 알려진 對象과 알려지지 않은 對象과를 비교함으로써 알려지지 않은 對象을 叙述하려 할 때 一義的인 叙述은 不可能하게 된다.

이와같이 自然啓示에 立脚하여 類推的方法으로 神知識을 얻으려 할 때 참 眞理에 도달할 수 없으며 따라서 特別啓示에 의해서만 神을 알 수 있게 된다.

Clark은 여기서 Kant의 先驗的인 觀念論을 基督敎的으로 修正하고 거기에다 第三의 認識의 資料로 하나님의 啓示를 첨가하고 있다. 그는 Aquinas의 自然神學에 立脚한 類推的인 神의 存在證明을 배격함으로써 感性에 의한 認識의 權利를 否定하였으며 하나님의 形像의 一部를 構成하고 있는 人間의 理性에 賦與된 神觀念을 통해서만 神을 認識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 先驗的인 認識의 必然的인 眞理性을 옹호함으로써 하나님의 知識과 하나님에 대한 人間의 知識의 一義性의 先驗的인 根據를 提示하고 있다.

III. 一義的인 眞理의 特性에 대한 論證

前章에서 하나님에 대한 人間의 知識이 一義的인 性質이 될 수 밖에 없는 論理的인 必要性和 先驗的인 根據에 대하여 考察하였다.

여기에서는 一義的인 眞理가 가지는 諸 特性에 대하여 考察하겠다.

1. 神知識의 先驗性

Clark에 의하면 人間이 世界의 本質을 認識할 수 있는 것은 世界의 法則性和 人間의 內在觀念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人間이 自然啓示를 통하여 神을 알 수 있는 것은 類比推理所 아니고 人間에게 內在하는 神觀念 때문이다. 이 神觀念은 하나님으로부터 apriori하게 人間에게 賦與된 觀念이다. 이 先驗的인 神의 內在觀念은 하나님의 形像의 一部(This sensus divinitatis is a part of the image of God)인 것이다. 人間이 自然에서 神을 認識하는 것은 人間의 마음속에는 이미 神知識이 內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Clark의 認識論은 그가 어디까지나 合理論的인 立場에서 있다는 것을 意味함과 同時에 그의 認識論이 Augustine의 思想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결국 人間의 神知識은 神 自身으로부터 先驗的으로 人間에게 賦與된 것이기 때문에 神 自身에 대한 自己知識과 人間의 神에 대한 知識사이에 是단순한 類比性을 넘어서 一義性이 認定되는 것이다.

34) *Ibid.* p. 150~151

2. 眞理의 絶對性

認識의 合理論的 立場에서 있는 Clark는 모든 經驗論과 相對論과 懷疑論에 反對하고 絶對的 眞理의 存在와 그 認識의 可能性을 믿는다. 그는 絶對的 眞理의 存在의 論據를 懷疑論의 反駁에서 求한다. 어떤 사람이 眞理가 存在하지 않는다고 主張한다면 그의 主張은 眞理이거나 거짓이거나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眞理가 없다는 主張이 거짓이라면 眞理는 存在할 것이다. 眞理가 있다는 主張이 眞理라면 역시 眞理는 存在할 것이다. 따라서 眞理가 없다는 概念은 不可能한 것이다.

이와같이 絶對的인 眞理가 存在하고 하나님의 形像인 人間이 이 眞理를 認識하였다면 眞理는 一義的인 것이 될수 밖에 없다.³⁵⁾

(1) 眞理의 不變性

만일에 眞理가 存在한다해도 그 眞理가 變한다면 絶對的인 眞理의 認識은 不可能할 것이다. 왜냐하면 眞理를 認識하는 그 순간 이미 그 眞理는 그가 認識했던 眞理와는 다른 眞理로 變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³⁶⁾ Clark는 眞理의 不變性을 옹호한다(Truth must be unchange-

able, what is true today always has been and alway will be true.)만일에 眞理가 變하는 것이라면 眞理의 可變性을 주장하는 實用主義(Pragmatism)나 道具主義(instrumentalism)는 眞理가 아닌 거짓 理論이 될것이다. 그것은 言語의 誤用이며 論理의 法則을 범하는 것이다.³⁷⁾

(To speak of truth as changing is a misuse of language and a Violation of logic.)

(2) 眞理의 永遠性

眞理가 絶對的이라면 眞理의 永遠性은 必然的인 것이다. 世界가 滅한다 해도 眞理自體는 滅하지 않는 것이다. 가령 眞理가 滅한다고 하자. 그래도 眞理가 滅한다고 하는 眞理自體는 滅하지 않는 것이다. 眞理의 永遠性의 否定은 眞理의 不滅性을 立證한다고 Clark는 主張한다.

3. 眞理의 精神性

眞理의 存在는 精神의 存在를 前提한다. 精神이 없다면 眞理는 存在하지 않을 것이다. 知識의 對象은 命題, 意味, 意義등이며 이것들은 다 精神의 産物이다.³⁸⁾ 이러한 眞理의 存在를 前提로 할때 唯物論的 人間觀은 成立될 수 없다.

저들이 비록 人間의 意識을 認定한다해도 그것은 肉體的 變化의 結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理性的 思惟를 포함한 모든 생각은 단순히 기계적 必然性의 結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다. 物質運動에는 本質上 참과 거짓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다면 眞理 또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眞理가 없다면 唯物主義란 眞理가 될 수 없다.

35) Ibid. p. 157

36) Christian View p. 319

37) Ibid. p. 319

38) Ibid. p. 319

그것은 마음이 없이는 唯物論的 眞理性을 論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음의 存在를 前提로 해서만 眞理가 存在하며 그 眞理는 肉體에 依存하지 않기 때문에 永遠不變한 性格을 가지는 것이라고 Clark는 論證한다.

4. 眞理의 卓越性

眞理가 絶對的이고 永遠不變한 精神的인 것이라면 眞理는 個人의 마음을 卓越해야 한다. 사람은 必然的인 眞理뿐만 아니고 보편적인 眞理도 인식한다. 이러한 眞理들은 變하지 않지만 人間의 마음은 變한다.

眞理가 만일에 個人의 마음에 依存한다면 人間의 마음의 變化에 따라 眞理도 變할 수 밖에 없다. 眞理에 대한 個人의 마음은 變할 수 있으나 眞理自體는 變하지 않는다. 사람의 마음은 眞理의 判斷을 맡아 하는 것이 아니고 眞理가 사람의 理性을 判斷한다. 만일에 眞理가 人間의 마음과 同等하다면 眞理는 永遠不變할 수 없다. 왜냐하면 人間의 마음은 有限하며 變하며 誤謬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故로 眞理는 人間의 理性을 넘어서야 하며 個人의 精神보다 卓越해야 한다.

Clark가 人間에 內在하는 先驗的 知識과 理性作用을 認定하면서도 人間의 마음을 眞理 밑에 두려한 것은 眞理를 決定지움에 있어서 人間의 마음보다 더 높은 정신의 存在를 認定하려 하기 때문인 것이다.

5. 眞理와 하나님

이렇게 眞理에 대하여 생각할 때 眞理를 위한 存在論的 根據가 要請되지 않을 수 없다. 眞理의 根據는 어떤 可滅的인 것이나 우연적인 것이 되어서는 않된다. 眞理는 永遠하고 不變하는 것이기 때문에 眞理는 永遠不變한 存在에 깃들여야 한다. 眞理가 精神的인 것이기 때문에 眞理는 永遠한 精神가운데 存在해야 한다. 하나님만 이러한 속성을 所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眞理가 되어야 한다.³⁹⁾고 Clark는 主張한다.

The truth or proposition that may be known are the thoughts of God, the eternal thought of God..... God's mind is God, be may say, we have a vision of God.⁴⁰⁾

人間이 眞理에 대하여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을 意味한다. 그리하여 모든 知識은 하나님에 대한 知識이 된다. 하나님에 대한 眞理는 類推의 方法에 의하여 推理되는 多義的인 眞理가 될 수 없다. Clark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人間의 眞理가 一義的인 性格을 띠게 되는 存在論的 根據를 提示하고 있는 것이다.

結 論

以上에서 Clark에 있어서 眞理의 一義性에 대한 論理的 必然성과 先驗的 根據와 一義的

39) The Philosophy of Gordon Clark p. 161

40) Christian View p. 321

眞理의 諸 特性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眞理가 一義의이나? 多義의이나? 하는 問題는 哲學的으로 어떤 立場에 서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經驗論의 立場에 설 때 眞理는 相對的인 것이 되며 따라서 多義的인 性質을 띠게 될 것이다. 일찌기 Protagoras 가 말한 바와 같이 「人間은 萬物의 척도」고 認識이 個人의 感覺的 經驗에 基礎한다면 眞理는 사람의 머리 수 만큼 많아질 것이다.

Clark는 基督敎的 先驗論의 立場에서 모든 종류의 眞理의 相對主義와 懷疑論을 反駁한다. 그가 懷疑論을 反駁함에 있어서 主武器로 사용한 論理는 矛盾律이다. 그는 矛盾律을 哲學的 思考의 前提로 삼았을 뿐 아니라, 論理와 存在를 同一視하였으며 言語, 信仰, 眞理, 하나님과의 一貫되는 構造的인 聯關關係에서 眞理問題를 省察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論理는 眞理에 도달하기 위한 方法이 아니고 眞理自體였다. 따라서 論理的 思惟에 의하여 認識된 眞理는 絕對的인 眞理가 되었으며 一義的인 眞理가 되었다.

眞理가 一義的이 될 수 밖에 없었던 또 한가지 理由는 先驗的 神知識을 人間이 所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形像인 人間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先驗的으로 神知識이 주어 있으며, 人間은 先驗的 神知識에 의하여 世界를 認識하고 世界속에서 神을 認識한다. 그때에 人間의 知識은 永遠不變하고 精神的이고 超個人的인 眞理가 되며 그리하여 人間이 認識하고 있는 神知識과 神의 自己知識사이에는 하등의 矛盾도 發見될 수 없는 一義的인 것이 된다.

Vantil은 그의 著書인 「A Survey of Christian Epistemology」에서 人間의 知識은 分析的이던 綜合的이던 經驗的이던 참으로 Analogical 할 때만 眞理에 도달 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Our reasoning the must always and every where he truly Analogical. It matters not whether we are reasoning in ductively or deductively. whether we analoge or Synthesige, whether we reason in a priori or a posteriori fashion, if we only reason analogically we are true to our principle and may expect result

그 理由는 하나님만이 모든것의 唯一한 窮極的인 解釋者이기 때문에 人間은 하나님 解釋의 再解釋者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Thomas Aquinas 역시 「Analogical」이라는 用語를 사용하였다. Clark는 Aquinas의 「Analogical」한 方法을 批判하여 a postriori한 Facts를 통하여 apriori 한 眞理를 認識할 수 없으며, 그러한 方法은 결국 懷疑主義와 나가서는 Nihilism에 빠지고 만다고 했다.

우리는 여기서 Vantil이 사용한 Analogical의 用語의 뜻과 Aquinas가 사용한 Anologoical의 用語의 뜻 사이에 差異點이 있는 것을 發見할 수 있으니 前者는 Original-Image로서의 創造論的 神-人關係에 立脚하여 認識問題에 接近하고 있는데 대하여, 後者는 經驗的 事實을 土臺로

하여 歸納法(Inductive Method)을 사용하여 超經驗的인 神의 存在를 證明하려 하였다.

前者는 世界와 人間과 하나님에 대한 知識을 하나님 自身の 啓示的 眞理에 依存시키려한데 대하여 後者는 人間의 經驗과 論理의 方法으로 神의 存在를 推論하려 하였다.

基督敎 認識論은 基督敎의 人間論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 Vantil이 原像과 形像의 構造關係에서 認識論에 接近한 것은 聖經的이라 하겠다. 人間은 어떤 경우에도 相對的이고 有限한 存在이기 때문에 眞理問題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依存하지 않으면 絕對的 眞理는 所有할 수 없다. 人間의 神知識이 비록 全解的 知識이 되지 못하고 部分的인 知識에 머문다 해도 우리는 知識의 相對主義나 懷疑論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神知識은 人間의 經驗이나 理性的 思惟나 主觀의 構成에서 由來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自身の 自己啓示에 根據하고 있기 때문이다.

世界에 대한 우리의 認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어떠한 方法을 동원해도 世界를 全解的으로 認識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啓示에 立脚하여 世界를 解釋할 때 世界를 바로 解釋할 수가 있다. 信仰 안에서 世界를 볼 때 世界 안에서 汎神論者처럼 하나님의 本體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創造의 榮光을 보게 된다. 그때 비로소 創造의 意味와 目的을 바로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Clark教授가 眞理의 相對主義와 모든 종류의 懷疑論을 反駁함으로 眞理의 絕對性과 一義性을 論證하려 한데 대하여 敬意를 表한다. 認識의 起源에 있어서 感性的인 資料를 배격하고 內在觀念과 神觀念과 하나님의 特別啓示에 依存하려한 點에 共感을 表示한다. 그러나 그가 思惟의 前提로 내세우는 論理 즉 理性이라는 Schema는 傳統的인 合理主義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原罪가 人間의 全人格에 影響을 미치게 했다고 말하면서도 유독 理性機能만을 特別한 配慮를 하려 하는 意圖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人間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永遠하신 神性이 被造世界에 나타나 있었던 것은 事實이지만(롬 1:19-20) 罪는 人間의 생각을 虛妄하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어두워지게 하지 않았는가(롬 1:22) 그렇다면 人間에 內在하는 內在觀念과 이 觀念을 통하여 세계와 神에 대한 絕對的 認識이 可能하며 그리하여 神의 自己知識과 人間의 神知識 사이에는 Vantil이 말한 것처럼 Analogical이 아닌 Univocal한 眞理가 成立된다는 Clark教授의 認識論의 立場은 Descartes와 Kant의 立場을 根本的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참 고 서 적

Ronald H. Nash, Editor. *The Philosophy of Gordon H. Clark*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Philadelphia, 1968)

Cornelius Vantil, *A Survey of Christian Epistemology*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delphia, 1969)

Vantil, *A Christian Theory of Knowledge*, (The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 Philadelphia, 1969)

Gordon Clark, *Christian View of Men and Thing* (Grand Rapid, Eerdmann, 1951)

Gorden Clark, *Thales to Dwey* (Boston, Houghton Mifflin 1957)

Gordon Clark, *Religion Reson and Revelation*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Co. : 1961)

"Reveled Religion. 24p. Pamphlet, found in CHRISTIANITY TODAY, December 17, 1965

Immanuel Kant, *Kritik der reien Vernunft*, (Felix meiner Verlag. Hamburg. Germany. 1956)

Williams, Sahakian, *History of Philosophy*, (A Division of Harper and Row Publishers Canade, 1968)

어거스틴의 「거짓말」에 대한 見解

- 그의 두 著書를 中心하여 -

李 保 民*

◇ 목 차 ◇

序 論

1. 거짓말의 本性 (Nature) 과 範疇 (Categories).
 - 가. 어거스틴의 견해에 있어서의 不確實性 (Uncertainty)
 - 나. 어거스틴이 거짓말을 定義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두 가지 要素.
 - 다. 거짓말의 範疇 (Categories) 와 程度 (Degree).
2. 거짓말에 대한 어거스틴의 論爭 (Argumentations against lying).
 - 가. 聖經解釋과 성경에 나타나는 거짓말.
 - 나. 실제경우에서 나타나는 거짓말을 배격하는 論證.
 - 다. 거짓말에 대한 일반적이고 이론적 형태의 論駁.
3. 批評 및 結論.

도서목록

序 論

기독교 教會歷史上 倫理學的인 저술이 항상 있어왔지만 어거스틴만큼 본격적인 저술을 발표한 분은 드물다. 原理的이거나 包括的인 면도 있지만 때로 대단히 技業的인 문제를 다룰 때도 있었다. 그 대표적인 例가 그의 거짓말에 대한 研究이다. 그는 이 연구에서 거짓말이라는 “些少한” 문제를 억지로 확대시키는 것은 아니다. 단지 그 문제를 세밀하게, 또 성경의 證據를 中心으로 다룰 뿐이다. 이면에서 우리는 많은 資料를 얻게된다.

*助教授